

“군산의 봄이 온다”

문 대통령, 군산조선소 재가동 위한 협약식에 참석
생산유발효과 2조원…대선 앞두고 호남 방문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열린 ‘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군산의 봄’을 보게 돼 매우 기쁘다. 군산조선소가 재가동에 우리 정부가 함께했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군산조선소는 세계적인 수주절벽 등으로 조선산업이 장기불황을 겪으며 2017년 7월 가동이 중단됐다. 이후 정부와 전라북도, 군산시 등이 현대중공업과 지속적으로 사태 해결을 위해 대화를 이어갔으며 결국 현대중공업은 군산조선소를 내년 1월부터 재가동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협약식은 내년 재가동을 앞두고 조선소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겠다는 뜻에서 마련된 자리지만 정치권에선 대선을 불과 2주 가량 남은 시점에서 호남을 찾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군산이 회복과 도약의 봄을 맞았다. 참으로 감개무량한 날”이라며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으로 전북과 군산의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완전히 가동되면 최대 2조 원 이상의 생산유발효과가 창출된다. 우리 조선산업의 경쟁력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군산은 개항 이후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보란 듯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GM대우 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위기도 극복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이야말로 한국 조선산업의 완전한 부활을 알리는 상징이 될 것이다. 군산은 이제 대한민국 선

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4월에 만료되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연장해 조선소가 재가동될 때까지 군산의 지역 경제와 조선산업 회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대선을 보름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여권의 ‘심장부’ 호남을 찾았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초반빙 점전을 벌이는 것에서 이번 군산 방문은 대선 레이스와 따로 분리해 해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우회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의미가 담겼다는 것이다. 특히, 윤 후보가 야당의 불보지와 다른없는 호남에서 적극적으로 대표 활동을 벌이는 있는 점도 이같은 해석에 힘을 실고 있다. 윤 후보는 전남 전북 정읍과 전남 목포를 비롯해 하의도의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하며 ‘호남 홀대론’을 부각한 바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이번 일정이 선거와는 무관하다며 완강하게 선을 그어 나갔다. 문 대통령의 군산 방문은 대선과 관계없이 기존에 확정된 일정이라는 것이다. 또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는 문 대통령이 오랫동안 마음 깊이 걱정해 왔던 ‘아픈 손가락’과 같은 사안이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의 군산 방문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그만큼 군산은 GM 공장 폐쇄 조선 산업의 장기불황 등으로 지역 경제의 굴곡이 심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송영길 대표, 국민통합 선거개혁 제안

민주, 안철수 등에 ‘다당제 보장’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포함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을 13일 앞두고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정치개혁 추진을 제안하는 승부수를 띄웠다. <관련기사 3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4일 ‘다당제 연합정치’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제도 개혁과 대통령 4년 중임제·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국민통합 개헌’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 출범 이후 6개월 이내 선거제도 개혁과

1년 내 개헌을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는 국민의당 안철수·정의당 심상정·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 등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당 후보들을 겨냥한 것으로, 이른바 ‘정척 연대’에 따른 ‘민심 단일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송 대표는 “민주당부터 반성하고 낡은 정치와 결별하겠다”면서 “국민통합 개헌으로 권력 구조를 민주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통합 정부 실천 ▲국민통합 국회를 위한 선거제 개혁 ▲국민통합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민주화 등의 3대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개혁안에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개헌, 지방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위장정당 방지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송 대표는 “민심은 다양하다.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실질적인 다당제를 구현하고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언해 온 ‘국민통합 정부’를 실천하기 위해 ‘국무총리 국회추천제’를 도입하고 ‘국민 내각’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세계적 거장들의 작품과 마주하다



‘인간, 일곱개의 질문’을 주제로 열리는 ‘리움미술관 순회전’이 24일 광양도립미술관에서 정식 개막했다.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자코메티와 앤디 워홀의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광양=최원배 기자 choi@kwangju.co.kr

광양도립미술관 ‘리움미술관 순회전’

전시장으로 들어가기 전, 로비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작품은 출근하는 여섯 사람의 모습을 통해 현대인의 생활의 무게를 표현한 조지 시겔의 조각 작품 ‘러시아워’ (1983)다. 이어 뽀빠 마른 인물상으로 유명한 자코메티의 청동 조각 ‘거대한 여인Ⅲ’ (1960), 앤디 워홀의 ‘마흔다섯 개의 금빛 마릴린’ (1979)이 관람객을 맞는다. 현대미술사(史)를 장식하는 스타급 작가들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리움미술관 순회전’이 24일 광양도립미술관(관장 이지호)에서 정식 개막했다. ‘인간, 일곱개의 질문’을 주제로 오는 5월29일까지 진행되는 전시는 국내 최고의 사립미술관으로 꼽히는 리움미술관이 지난해 10월부터 약 3개월간 개최한 재개관 기념전의 작품을 선보이는 대규모 기획전이다. 서울전 내내 ‘전일 매진’을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던 전시로, 지난

자코메티 ‘거대한 여인Ⅲ’
앤디 워홀 ‘... 금빛 마릴린’ 등
현대미술 스타급 작가 40여명
100여점 작품 한자리에 전시
서울전 ‘전일 매진’ 기록 화제

2004년 개관한 리움미술관이 자체 기획한 전시를 다른 미술관에서 전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전시장에는 삼성미술재단 류문형 대표, 호암재단 김현곤 상무, 전시 참여작가인 류인 작가의 유족, 김경호 광양부시장, 김영신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 등이 방문, 전시를 관람했으며 첫날부터 일반인들의 관람도 이어졌다. 세계 현대미술의 흐름을 조망해 볼 수 있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거대한 거미를 소재로 한 작품

‘마방’으로 유명한 부르주아, 데미안 허스트, 이브 클렘, 매튜 바니 등 세계적인 현대미술 거장과 이블, 정연두, 이건용, 주명덕 등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 40여 명의 작품 100여 점을 만날 수 있다. ‘거울 보기’, ‘일그러진 몸’ 등 7가지 테마로 구성된 전시구성은 서울 리움미술관 전시 컨셉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지호 전남도립미술관장은 “리움미술관의 협력으로 전남에서 자코메티, 조지 시겔 등 세계적인 거장의 작품을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립미술관은 지난해 이경희 컬렉션 중 김환기·오지호·천경자 등의 작품 21점을 기증받아 특별전 ‘고귀한 선물, 위대한 유산’전을 진행하기도 했다. 관람료는 성인 5000원, 어린이·청소년·대학생·군인·예술인은 1000원이며 전남도민은 50% 할인 혜택을 준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푸틴, 우크라 침공...미 “동맹과 가혹한 제재”

블라디미르 푸틴 러아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새벽 우크라이나 내 ‘특별 군사작전’을 승인했다. <관련기사 2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현지시간으로 오전 5시 50분께 긴급 연설 형식으로 “우크라이나의 위협을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우크라이나 동

부 돈바스 지역에 대한 특별작전을 선언했다. 또 이번 군사행동이 친러시아 반군 점령자인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우크라이나 점령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를 비롯한 하리

코프, 오데사, 베르단스크 등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이 동시다발로 벌어졌고, 우크라 북부와 국경을 맞댄 벨라루스와 러시아가 강제 합병한 우크라 남부 크림반도에서도 공격이 시작됐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러시아가 강행한 군사작전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침공으로 규정하고 동맹과 함께 즉시 가혹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메르세데스-벤츠 광주 수완 전시장 & 서비스센터 2022년 3월 Grand Open!

■ 딜러십 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4-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망대로 1041(화정동)
MB 민통충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16(수원동)
초은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이대사로 603번길 20(소촌동) 수완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20(수원동)
광주 제2 딜러십(오른 역점)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전동)